

‘정가제’ 파문에 ‘폐업불사’ 강경대응

출협 정기총회서 결의... 서련도 3월6일부터 철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출판계와 서점업계는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자진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난 2월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던 출판협회는 이어서 24일 사학연금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파괴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출협은 이날 “지금의 정가과피 정책은 교과용 도서검정제도의 변경과 같은 졸속한 조치”라면서 “도서정가제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오는 3월중에 전 출판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마련해 정가과피에 대한 부당성을 각계에 알릴 예정이다.

또한 전국서점조합연합회도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서정가제를 파괴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오는 98년까지 유보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서련에 의하면 98년까지의 유보기간 동안에 각 서점의 POS시스템 도입, 최소 50평으로 매장공간 확대, 도서의 주문 배달체제 도입 등을 이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3월 6일부터 5천2백여개의 조합 서점이 철시는 물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당초안대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의 의견을 수렴, 재판매가격 유지불허 대상도서를 선정 고시하기로 했다. 새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4월 1일 입법 예고되고,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판단체 일제히 총회

한국출판협동조합 정기총회를 비롯,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출판

지난 2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출판유통(가칭)이라는 새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시안이 발표됐다. 이 유통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오는 96년 말까지 150억원의 출자금을 특별 증자해 일산출판단지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자랑스런 출판인’에 홍지용씨(열린책들 대표), ‘자랑스런 서점경영인’에 김윤환씨(영광도서 대표), ‘베스트부커상’에 차병수씨(울곡문고 이사)와 김동익씨(동보서적 부장)를 선정, 시상했다.

지난 2월 23일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출판단지조합 제5차 정기총회에서는 이기웅이사



지난 2월 22일 열린 출판협동조합 정기총회 전경.

학회의 정기총회나 이사회가 지난 2월말 잇달아 열렸다.

장이 재선임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도현 문화체육부 차관은 “올해 안에

출판단지 착공”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도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연구소장체제를 도입하는 정관개정과 함께 「멀티미디어의 출판산업 발전방안 연구」 등 5건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출판학회 새 회장에 閔丙德씨

한국출판학회는 지난 2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민병덕씨

(혜전전문대 교수)를 선출했다. 전임 윤형두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7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도 있었는데, 저술·연구부문에 오경호 교수(광주대), 기획·편집부문에 서광사(대표 김신혁)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93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을 주도했던 강인섭 국회의원에겐 특별공로상이 주어졌다.

‘서울출판유통’ ‘뿌리와 날개’ 합병

출판 VAN 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 앞당길 듯

거대 유통회사인 ‘서울출판유통’과 ‘뿌리와 날개’가 합병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6일 서울출판유통의 허창성 회장과 뿌리와 날개의 강경중 대표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15일 서울출판유통(회장 허창성) 15명의 전체이사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뿌리와 날개와 합병하고 대표이사로 강경중씨(현 뿌리와 날개 대표)를 선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합병된 이사의 이름은 ‘서울출판유통’ 그대로.

그동안 서울출판유통은 도매분야의 사업영역을 치중해온 반면, 뿌리와 날개는 창고보관, 배송 등 물류사업영역에 주력해왔다. 양대 유통사의 합병은 각사의 중복투자로 인한 출판계의 손실을 막고, 출판개방화에 따른 외국자본 침투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유통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점·출판사·도매서적상 2백여 개사가 주주로 참여해 55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서울출판유통은 지금까지 26개사의 지역총판과 22개사의 전국총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출판유통업을 시작한 뿌리와 날개는 3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지금까지 3천여 서점과 거래해왔다.

서울출판유통에서는 합병을 계기로 출판 VAN시스템 구축, 서점의 POS시스템 보급과 ‘무인 책 수납함’ 제작 등의 사업과 함께 출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내에 구축해 내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새로 서울출판유통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경중씨는 “양사 통합에 따라 보유하게 된 85억원의 자본금을 올해 연말까지 100억원대로 증자할 방침”이라면서 “3년 내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증자하고, 5년내에 기업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지혜로운 자가 되고픈 이들에게

동서고금에 걸쳐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모아, 올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 김창원 편 / 400쪽 / 값 5,800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X세대나 감성세대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쏟아지는 상업문화의 범람 속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

나는 세상의 중심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깨달음의 책!

◆ 석티 거웨인 지음 / 김명렬 옮김 / 400쪽 / 값 5,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팩시밀리 739-2129

